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최고

7일까지 서울 양재·고양·수원·성남 하나로마트서 한마당 축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주최 무주군·주관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가 지난 2일 시작했다.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 마트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황인홍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 농협유통 이수현 대표, 하나로마트 양재점 경종혁 지사장, 재경무주군민회 이근중 회장 등 내빈들과 무주군 농업인단체 회원 등 무주군민, 그리고 도시소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악퓨전과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진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개막행사는 오전 11시 기념식과 축하공연, 무주 쌀로 빚은 오색 가래떡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청정무주에서 맛도, 영양도, 품질도 으뜸인 반딧불 농·특산물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며 "무주의 깨끗한 자연과 고품질 기후가 키우고 무주사람들이 정성으로 가꾼 반딧불 농·특산물의 진가를 꼭 맛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이곳 양재를 시작으로 7일까지 성남과 고양, 수원에서 열리는 한마당축제 입소문 많이 내달라"며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많이 알리고 많이 팔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지난 2일 시작했다.

아서 많이 거두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사과와 무주를 소개하는 내용을 '사랑의 묘약, 축배의 노래' 등에 맞춰 오페라 무대로 선보였던 축하공연이 호응을 얻었으며, 무주와 농·특산물 등에 관한 내용을 퀴즈로 풀면서 대중가요와 클래식 음악 무대를 함께 볼 수 있었던 식후 버스킹도 축제의 흥을 돋웠다.

양재동에 사는 강 모 씨(62세)는 "평소 즐겨먹는 반딧불 사과를 직접 농사지어 올라온 농업인들한테 사니 더 믿음도 가고 좋다"라며 "보니까 사과 말고도 벼서이랑, 더덕, 오미자, 고구마 등 뭐가 많던데

두고 먹게 좀 많이 사가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농협유통 하나로 마트에서는 7일까지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다양한 이벤트행사가 열리며 수원점과 고양, 성남점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및 반딧불사과 관측행사로 진행된다.

사과와 포도 등 과수를 비롯해 김장시즌을 겨냥한 무와 배추, 마늘, 생강, 그리고 더덕과 도라지, 유수수 등의 채소류, 고구마와 들깨, 인삼, 콩, 고사리, 천마 등이 판매대에 오르며 이외 천마와 홍삼, 산머루 가공품들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정보화마을 페스타 참가

경기도서 직거래장터 열어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골과 동향 천반산 구리교를 정보화마을이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서 열린 '2018 정보화마을 페스타'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보화마을 페스타는 전국 규모의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다. 진안군 2개 정보화마을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마을에서 생산되는 호박고구마, 사과, 홍삼, 도라지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도시민들에게 진안

군 특산물 품질의 우수성과 마을 체험행사 등을 알렸다.

진안군 정보화마을은 그동안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제공하며 고객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보화마을 관계자는 "중앙단위 직거래장터 참여와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콘텐츠 개발, 마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노래자랑 장수군 편, 7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청사 준공식에 열리는 KBS 전국노래자랑 참가자 접수가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국노래자랑은 11월 10일 장수군청사 준공식과 함께 오후 1시부터 11월 7일까지 장수군청사 준공식에서 펼쳐진다.

노래자랑은 국민 MC 송해의 진행으로 끼 있는 군민들의 노래자랑과 함께 하춘화, 배일호, 추가열, 김양, 영크 등 인기 가수들의 흥겨운 축하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1월 7일까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예심은 8일 오후 1시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예선 접수를 못한 참가 희망자를 위해 예심 당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준공식과 함께 열리는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은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치됐다"며 "군민들의 열의로 열리는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에 끼 있고 열정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외는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063.350-2220)에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는 지난 2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담을 방문했다.

진안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 선진지 견학

마을만들기 우수사례학습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는 지난 2일부터 2일간 소속 마을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신뢰관계 구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하여 전담을 방문했다.

선진지 견학에 나선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원 60여명은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에서 3단계(오피스텔/가정/사업) 이상 참여한 마을의 리더 및 주민들로 구성되어 그간의

노고 격려와 자긍심 고취, 갈등해소 및 리더십 발휘 등 재도약을 위한 에너지 충전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게 됐다. 견학 첫 날은 전라남도 영광군 여민동리공동체 견학하여 농촌복지공동체의 우수사례를 학습했다.

2일째는 진도군에서 가장 큰 마을인 소포리를 방문하여 진도의 특산물인 검정참쌀(흑미)를 브랜드화하여 전국으로 공급한 사례를 듣고 남도소리체험도 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병원, 진안군청서 강연

진안군은 지난 2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포럼 형식의 강연을 가졌다.

이날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박희승 교수의 주제 강연과 (前)원자력정책포럼 김영렬 이사장 등 8명의 패널과 함께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승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리과정과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라돈침대, 라돈 여성용품 등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명했다.

무엇보다 박희승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은 우리 국민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종합복지관 장애인 가족테마여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하고자 지난 1~3일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8가정(총 22명)과 함께 제주도 일원에서 가족 테마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제주도에서 진행된 가족 테마여행은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장애인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박 3일 동안 제주 산골부리 견학, 레일바이크 체험, 마라도 견학, 집중수업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가족들 모두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이번 나들이를 즐겼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존중받는 장애인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며 많은 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진안 집수리 봉사단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우수상

소외계층 사랑의 집 지어주기 공적 인정받아

진안군집수리봉사단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 상은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에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제정한 것으로 국회 송영길 의원이 대회를 맡고 있다.

진안군집수리봉사단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건축분야에 재능을 가진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을 받아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

주고 있다.

진안군집수리봉사단은 2012년 6월 최초 결성되어 불우가정 도배·장판 교체 및 노후주택 집수리 공사를 실시해 왔다.

2015년부터는 집이 없거나 화재로 집을 잃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등에 총 6채의 집을 지어줬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김용진 이사장은 "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제6호 사랑의 집을 지을 때까지 도와주신 진안군 및 종교단

체·지역업체·사회단체와 집수리봉사단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진안은 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에서 자원봉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작년에는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집수리봉사단의 수상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